

## 지하철 2호선 1단계 내년 개통 무산 우려 “시민 불편 어쩌나”

‘지하 암반’ 영향 종합 공정 차질  
1-6공구 전체공정률 63.3% 머물러  
공구별 공사·개통 시기 등 재조정  
내년 말 개통 이행 사실상 힘들 듯  
市 “이달 중 변경 일정 발표 방침”



정체 빛는 2호선 공사장 주변 도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남구 백운광장 일대 도로가 공사 여파로 막혀 있다. /김예리기자·조영권인턴기자

당초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1-6공구)이 지하 암반으로 인해 종합 공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통 시기 역시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역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11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지하 암반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전체 종합 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공정 재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당초 시운전, 법적 승인을 거쳐 내년 12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6월 1단계 토목공사를 마친 뒤 내년 초까지 건축·전기·통신·신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전체 공구에서 다수의 지하 암반이 발견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지는 바람에 공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총연장 17km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전체(토목+시설) 공정률은 6월 기준 63.3%에 머물고 있다. 예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안에 마무리돼야 할 토목공사 공정률은 90.7%다.

현재 공구별 토목 공정률은 1공구(서구 유촌동 일대-운천저수지) 95.3%, 2공구(금호지구 일

구-월드컵경기장) 84.1%, 3공구(월드컵경기장 사거리-무등시장) 80.3%, 4공구(무등시장 사거리-남광주고교 방면) 85.4%, 5공구(무등산아이파크-산수오거리) 95.9%, 6공구(광주농협-효동초 사거리) 92.7%다. 당초 이달 중 토목공사를 마무리한 뒤 건축, 전기, 통신, 신호 등 후행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공정 초기 단

계부터 발목이 잡혀 공사 지연으로 이어졌다.

광주시는 전체 종합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 전반을 재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공구별 공사 단계, 공사 내용, 개통 시점 등을 정밀 분석해 공정 관리를 조정하고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 심사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지연 가능성이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장기화, 도로 복구 지연·부실, 복공판 소음·진동 등 민원, 예산 이월 등을 지적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기자

후 “주식 배당축진제도 준비”

KOSPI  
2,907.04

부당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코스피 3년5개월만에 2,900선 돌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당거래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사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오후 3시30분 기준(대체거래소 제외)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19p(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피는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 이후 이날까지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수·정은솔기자

## “새 정부 신설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해야”

김지사 “에너지 대전환 결정적 전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최적지 제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새 정부가 신설을 공약한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수도로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구조 속에 기업은 불확실성에 발목 잡히고, 주민은 소외되며, 투자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합해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 축이 돼야 하고 전남도가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전남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여수 국가산단·묘도 CCUS와 여수·광양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립야생대자물실증센터, 해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가 해양생태공원과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등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까지 수립하며 에너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이익공유제 등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에너지공기업이 입주해 협업에도 유리하다.

김 지사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천 176GW로 전국(7천333GW)의 16%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춘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과감한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최전선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에너지부’ 조직 설계에 지역 목소리를 담고 전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유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재정기자

**Today**  
중공영제 시내버스 파업 구경만할텐가 6면  
남도인물열전...‘표해록’의 저자 ‘최부’ 14면  
김도영·박찬호, 올스타 팬 투표 ‘순항’ 16면

OK! Now Jeonnam

광주매일신문 창사 34년 SINCE 1987 주년

## 전남도민이 누리는 스포츠 복지

**대상** 저소득·차상위 계층 5~18세 유·청소년(2007년~2020년)

**지원** 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최대 12개월 / 2025년, 월 10만 5천원)

**신청**

- 시·군 스포츠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s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문의 : 전남도청 스포츠산업과(061-286-5542)